청년 초청 사업

머 리 말

「21세기를 위한 우정계획」은 국제협력사업단 (JICA)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협력의 일환으로서 아세안을 비롯하여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각국으로부터 장래의 국가건설을 담당하게 될 청년들을 전문분야별로 나누어서 일개월 동안 일본에 초청하여 각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홈스테이 가족들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돈독히 하고 신뢰와 우정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초청사업입니다.

1984년도 부터 1994년도 까지 11년간 일본을 방문한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각국의 청년은 11,92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초청국은 처음에는 아세안 6개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태평양제국, 미얀마, 중국, 한국, 남서아시아제국, 몽고, 아프리카제국 및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등 인도차이나 삼개국이 참가하게 되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사업을 시작한지 12년째를 맞이한 1995년도에는 1,533명의 청년을 초청하여 무사히 초청사업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계자 여러분들의 협력과 우정어린 지원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본 보고서는 초청청년 합숙세미나에 참가하였던 일본청년 및 홈스테이를 받아주신 전국의 호스트패밀리가정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감상문을 중심으로 초청청년들의 한 달 동안의 체재기록을 엮은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본사업의 보다 큰 발전을 위한 지침이 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금년도의 전 초청청년 및 각국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훈훈해지는 감상문과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년초청사업의 초청프로그램이 더욱더 뜻깊은 교류프로그램이 되도록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996년 3 월

국제협력사업단
연수사업부
부장 이하라 히로요시

차 례

머리말

1. 대한민국 청년 초청 사업

(1) 사업의 개요 ………… 37

(2) 사업실적 ………… 38

2. 초청 청년 감상문 ………… 40

3. 합숙세미나 참가 일본청년의 말 ………… 44

4. 홈스테이 가정이 느낀 인상 ………… 47

〈실적자료〉

1. 대한민국 청년초청사업 실적 일람표 ………… 53

2. 1995년도 청년초청사업 실적 일람표 ………… 54

3. 서울창구기관 (서울프로그램실시기관) ………… 56

4. 관련 청소년 단체 주소록 ………… 56

〈초청 청년 명단〉 ………… 59

1. 대한민국 청년초청사업

(1) 사업의 개요

1) 목적

21세기를 향하여, 한국과 일본의 우호와 협력관계를 보다 확고하고도 알찬 관계로 만들기위해, 미래의 국가 건설을 담당하게 될 한국청년을 일본에 초청하여, 일본의 동세대 청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돈독히 하고 참된 우정과 신뢰를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실시 방법

(a) 초청 인원수

1995년도는 100명의 청년을 동시기에 초청한다.

(b) 초청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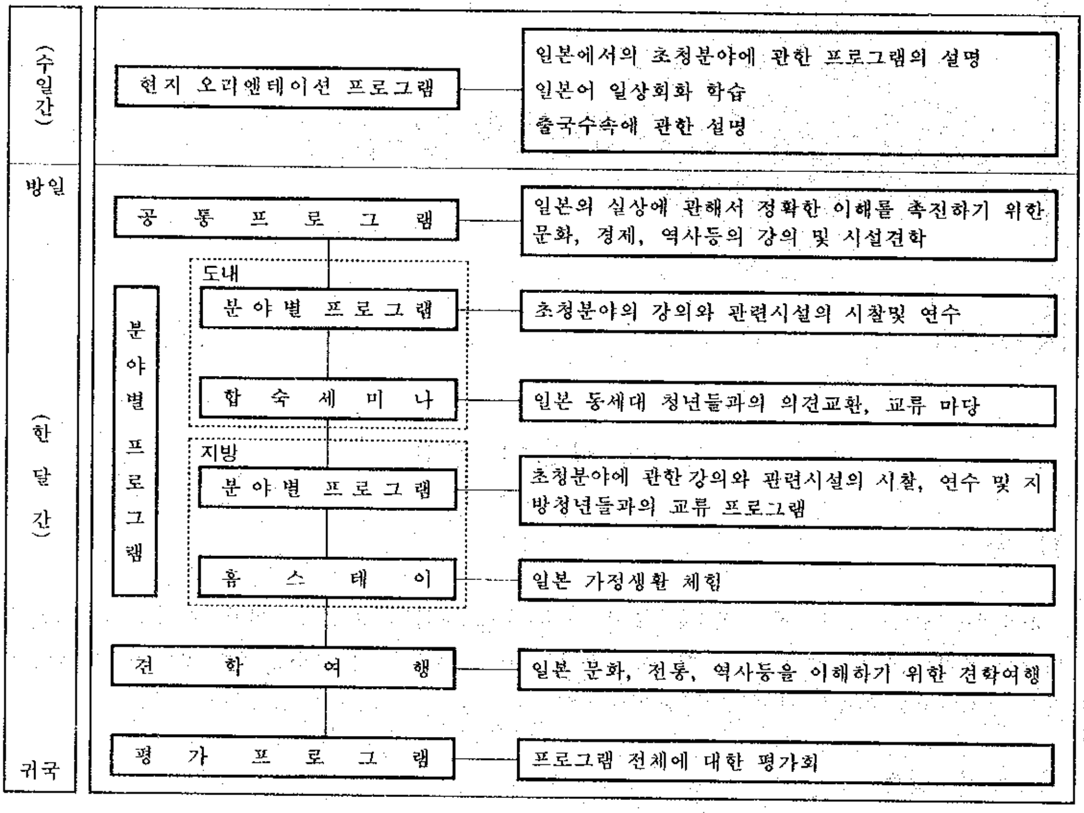
아래와 같은 분야에 있어서 지도적 입장에 있는 18~35세의 청년.

① 청년지도자・공무원 25명
② 근로청년 (기술계) 25명
③ 교원 (양호학교) 25명
④ 학생 (이과계) 25명

(c) 초청기간 및 시기

초청기간은 7월5일~8월 3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방일전에 수일간의 서울프로그램을 실시한다.

3) 프로그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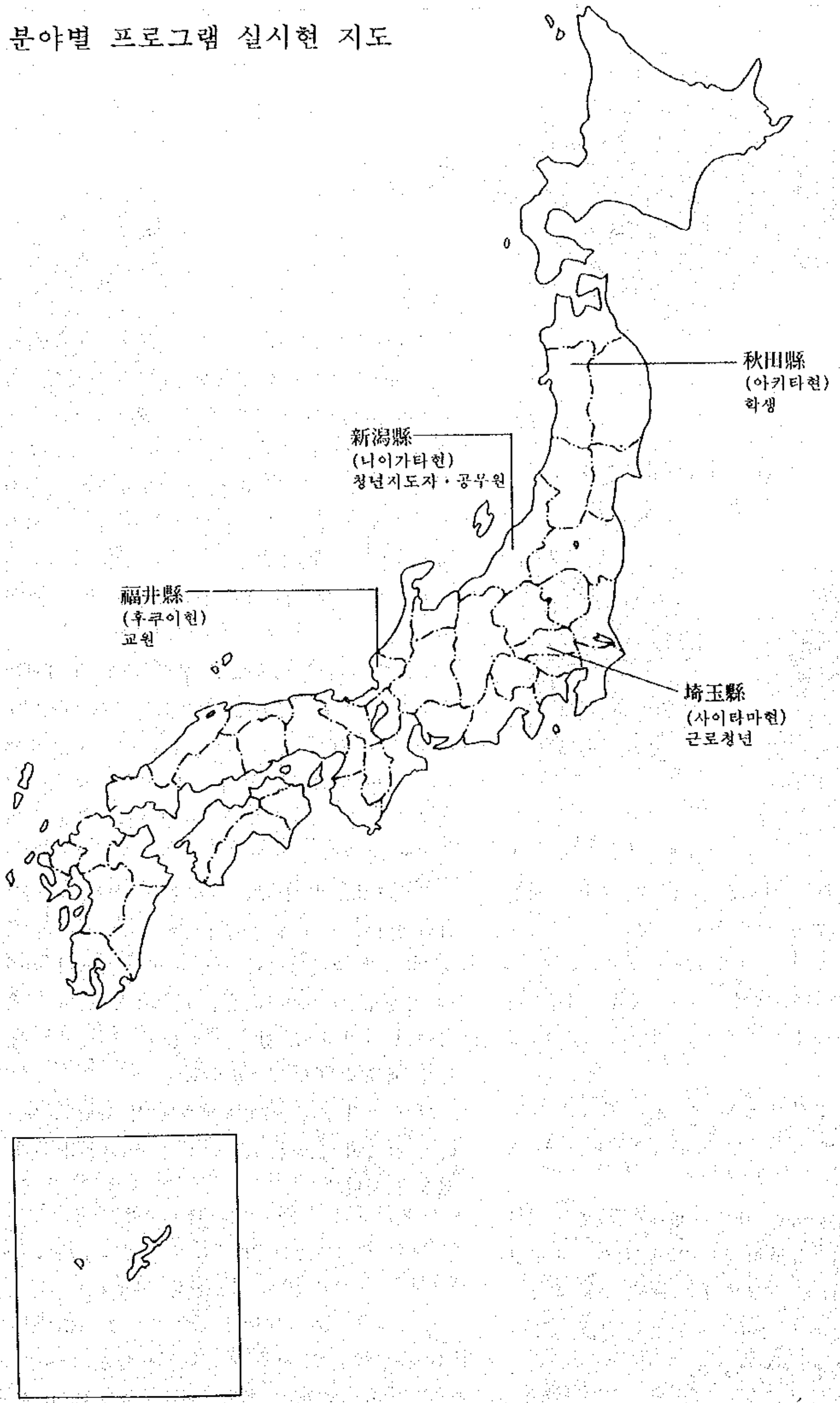


(2) 사업실적

분 야 명	인원수	실시협력단체	실시현
청년지도자·공무원	25	국제교류서비스협회	新 潟
근로청년 (기술계)	23	근로후생협회	埼 玉
교 원(양호학교)	25	일본유스호스텔협회	福 井
학 생 (이과계)	25	세계청소년교류협회	秋 田

*공통·평가프로그램에 관해서는 日本國際協力센터가 전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분야별 프로그램 실시현 지도



2. 초청 청년 감상문

청년초청 사업 계획에 참가하고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박 애스터
(청년지도자반)

한달간의 일정으로 우정의 계획에 참가하는 일본방문이 결정되었을 때 기대 반 우려 반의 착잡한 심정이었다. 새로운 사람들의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기쁨과 한편으로는 일본, 일본인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 모든것을 털어버리고 내게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느껴보자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난 후 나의 감상을 정리하자면 일본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하는 것이다.

체험적 일본어학습 시간에 만났던 60세의 회사원 볼론티어는 당연히 20~30세의 젊은이일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끝까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친절하게 안내하며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합숙세미나에서 만난 에이코는 연극을 좋아하고 명랑한 아가씨로 밤새워 서툰말로 이야기를 나누며 인간적인 관심을 보이고 헤어질때는 눈물을 보이며 나의 마음에 진한 여운을 남겨주었다.

그리고 홈스테이에서 만난 히포패밀리 클럽의 일원들은 뚜렷한 리더가 없어도 일정한 시간이 정해지면 스스로 참가하며 친구가 되어 어울리며 모임을 지속해가는 자주적인 모습을 엿볼수 있었다.

홈스테이하며 머물었던 집의 국교 4학년의 다이키는 몇마디 안되는 한국어로 나와 얘기하고 싶어 하고 특히 학교 교장 선생님께 나를 소개하고 싶어 했는데 그분의 일정상 이루지 못하여 너무나도 상심하는 모습이 또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들 하나하나가 가진 인정 성실함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일본의 밑바탕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젠 나 자신도 더 이상의 편견과 오해를 벗고 정을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일본을 새롭게 접할 수 있었다.

그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들이 보여 준 친절은 길이 가슴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일본방문을 마치면서

고광율
(근로청년반)

대다수의 한국인에게 있어 일본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 특별한 의미는 크게 세가지 경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따른 피해의식과 적개심, 둘째는 일본의 비약적 경제발전을 배우고 익혀 일본을 이기자는 克日精神, 그리고 셋째가 日本경제의 우월성을 동경하여 스스로를 낮추고 실리만을 구걸하는 비굴한 정신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본관은 일본을 객관적 대상으로 바로 볼 수 없는 장애가 되고 있다.

나는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일본은 한국을 어떤 식으로든 의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시말해 일본은 주체적이며 객관적인 인식으로 한국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강자의 논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마땅히 분하고 원통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인식이 오늘날 일본의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이었다면 이것을 누가 탓할 수 있겠는가.

적개심과 증오심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근원이 되어 결국 상대를 이기기는 커녕 바로 볼 수 조차 없게 만든다. 나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식 주체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를 알고자 노력했다. 따라서 나는 역설적이지만 한국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찾는 길이 곧 "일본식 주체성"을 파악하는 열쇠임을 알았다.

우리 속담에 "옛날에 우리 집안이 정승판서 집안 이었다"라는 말과 "우리도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것이 결단코 패자의 위안임을 느꼈다. 흔히 말하길 역사는 승자의 것이며, 명분은 승리가 가져다준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승자나 승리가 언제까지 진실을 배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진리를 이곳 일본에서 다시금 사무치게 느꼈다.

끝으로 일본을 보여준 JICA에 깊이 감사드린다.

작은만남

원 성옥
(교원반)

나는 사실 그동안 일본사람, 일본문화, 일본어에 대해 접할 기회도 관심도 없었다가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달이라는 일정이 좀 부담스러웠지만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첫 발을 디딘 일본의 첫 인상은 교통체증 현상까지 비슷해 그리 낯설지 않다는 것이었다.

첫 일주일은 입을 열어 말만 하지 않으면 서울인지 東京인지 분간할 수 없는 거리를 다니면서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양국간의 문화 마찰이 심각할 수 있다는 西岡力 선생님의 강의 말씀을 실감했다.

국가의 명예(?)가 걸린 중대한 만남이라는 부담감으로 시작된 합숙 세미나에서 나는 일본 선생님들 앞에서 이미지 관리를 하느라고 신경이 쓰였다.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 탐색전이 끝나자 봇물 터지듯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더니 "우리는

조금 다르고 모두 같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일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후, 체육대회 교류의 밤에서 우리는 서로 같은 일에 종사하며 비슷한 갈등을 겪고 비슷한 꿈을 가지고 사는 청년들임을 마주잡은 손을 통해, 마주보는 눈빛으로 함께 큰 소리로 부르는 노래와 춤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못내 아쉬워하며 헤어지면서 더우기 福井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大阪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숙소나 견학지로 찾아온 일본 선생님들을 대하면서 이 작은 만남이 어쩌면 큰 만남을 이루어 전 세대가 풀지 못했던 매듭을 우리가 풀 수 있으리라는 감동이 뭉클 전해 왔다.

이런 작은 만남의 불씨는 민박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를 보면서 너무 깔끔해서 얄미울 것이라는 내 선입견이 깨지고 합숙 세미나에서 아무렇게나 놓여진 일본 선생님들의 신발이나 더러운 뒷골목에서 느껴졌던 것처럼 왠지 이상한 푸근함이 느껴졌다.

국경도 나이차도 있고 사전을 찾아가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분과 헤어지면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그분은 한국어로 나는 일본어로 이야기할 것을 약속했다.

이 한달 동안 나는 서로간에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으므로 서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이루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일본에서 흘린 눈물

—아키타의 하얀 손수건과 히로시마의 평화공원—

김 기덕
(학생반)

95년 여름, 그 열기만큼이나 뜨겁게 지나갔던 일본에서의 한달중, 내게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으라면 나는 서슴없이 7월27일의 일들을 꼽을 것이다.

7월27일 아침, 우리 일행 25명은 아키타에서의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을 마치고 히로시마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반쯤 갔을까? 나는 코끝이 시큰해짐을 느꼈다. 버스가 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홈스테이 가족의 아주머니가 흔들던 하얀 손수건,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흔들어 주던 그 하얀 손수건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인간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여전히 인간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키타에서의 감동이 채 사라지지 않은 시간 우리가 찾은 히로시마의 평화공원에서, 아키타에서와는 전혀 다른 눈물을 우리는 흘리고 있었다. 거대한 평화공원, 그 귀퉁이 길가에 초라하게 자리잡은 한국인 원폭희생자위령탑 앞에서의 울분은 힘없는 약소 민족국가로서 당한 그 때와 다를 바 없는 지금의 우리 처지에 대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평화의 종, 평화의 불, 평화의 다리… 평화는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그렇게 쉽게 이야기되어서도 안된다고 믿기에 내가 느꼈던 울분이 더 컸는지도 모른다.

조용함과 자유분방함이 공존하고 집단적 전체주의와 개인주의가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일본을 이한달로써 정의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도 따뜻한 인간의 정은 존재하고 있었고 북위 40도의 조그만 도시 아키타에서 느꼈던 만남과 헤어짐의 감동은 내가 1995년 여름의 일본을 기억하는 한 영원할 것이다.

3. 합숙세미나 참가 일본청년의 말

최대의 수확

아라이 히로시(薪井 浩)
(공무원)

국제화 시대로 일컬어지고, 다른나라 사람들과 교류를 갖는 것이 쉬워진 오늘날에 있어서도,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어 공부도 안하고, 외국을 방문한 적도 없었던 저는, 그와같은 행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번에 한국 공무원 그룹의 합숙세미나에 참가한 것도 적극적인 행동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그저 왠지 흥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3일간 한국분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배구와 볼링을 즐기면서 서로 함께 땀을 흘리기도 하고, 서로 술잔을 주고 받기도 하고, 상대방 나라의 노래를 서로 부르기도 하고 춤도 추는 한편, 어떤 때는 토론(내가 있던 반에서는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의 교육문제을 테마로 한 토론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을 하고, 또 서로 자기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매우 강하게 느낀 것은 「일본어가 아주 당연한 듯이 통하지 않는 환경을 외국에 나가지도 않고 체험할 수가 있었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일본어 21」 수첩을 보면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종이에 단어를 쓰기도 하고 과장스런 제스처를 섞어가면서 서툰 영어를 사용하여 저는 한국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꾀하였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실패와 부끄러움을 겁내지 않는 적극성이 나에게도 조금은 있구나 하고 느끼기도 하고, 또한 그런 자신에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을 수가 있었던 일 등, 이 세미나에 참가함으로써 얻은 수확은 수없이 많지만 외국분들과 교류를 가지려고 하는 적극성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은 최대의 수확이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세계

아야베 아키히코(綾部昭彥)
(회사원)

직업 관계상 여러 나라사람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술자입니다만, 영국, 아일랜드, 중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 9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일 관계로 교제하고 있기때문에 솔직담백한 교류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근로후생협회로부터 한일 근로청년 합숙 세미나에 관한 안내가 있어서 일을 벗어난 교류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참가를 희망하였습니다. 세미나에 참가하기 전에 자세한 사전 설명을 받았습니다. 세미나의 취지와 교류 목적, 그리고 상대방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

한 지식을 저희들에게 지도해 주어서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7월 14일, 드디어 2박 3일의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장의 유머 넘치는 인사말로 시작되어, 이어서 실시된 레크리에이션(배구)에서는 언어의 장벽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서로 허물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후의 그룹토론을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룹토론에서는 결혼문제, 就労문제 등 평소에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공통화제가 중심이되어 나라사정은 달라도 기본적으로는 똑 같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깊게 교류해 온 나라이어서 사회의 시스템이나 습관 등에 많은 공통점이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 반면 가까운 거리에 비해 양국간의 교류가 적어 이와같은 기회가 없으면 표면적인 지식밖에 얻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요.

합숙세미나에 참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저희들의 국제교류에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마음과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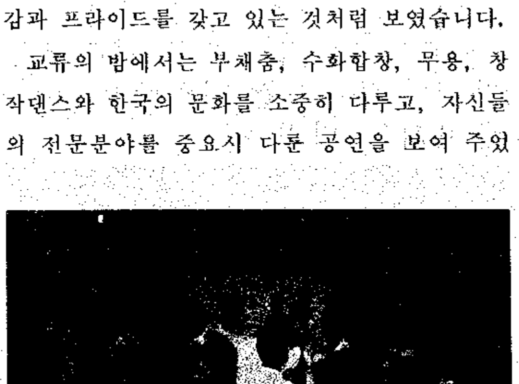
이케다 교오코(池田京子)
(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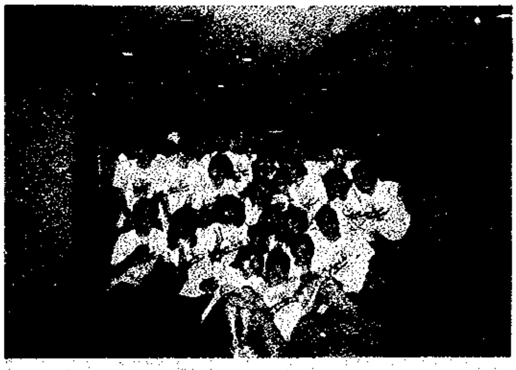
2박 3일간 한국교원그룹과의 교류를 실시함에 앞서서 사전연수가 있었습니다. 사전 연수에 온 대부분의 참가자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안을 느껴,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도 필요 없을 정도로 당일은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교류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포츠교류에서는 2인3각, 줄넘기, 줄다리기를, 서로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고 같이 힘을 합치기도 하면서 주고 받은 말은 없어도 몸으로 통하고 마음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스포츠교류는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분과회에서는 다양한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서로 이해를 깊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애아에 대한 생각과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하려고 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양국 다 다를 바 없지만, 한국분은 전문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자신감과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류의 밤에서는 부채춤, 수화합창, 무용, 창작댄스와 한국의 문화를 소중히 다루고, 자신들의 전문분야를 중요시 다룬 공연을 보여 주었





습니다. 거기에 비해 저희들의 공연은 일본문화와는 거리가 먼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대로 즐기기는 했지만 일본인은 자기나라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외국 것만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가지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를 깊이하고 서로 마음을 통할 수가 있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도 침식을 함께 하면서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알려고 한 것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이 무관심한 나라에서 좋아하는 나라로

이자와 노리코(井澤憲子)
(학생)

무관심이라는 것은 혐오감 보다 오히려 번거로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관심이라는 것은 그 존재 대상한테 어떤 의의도 발견하려고 하지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이 감정은 찬스를 놓치면 좀처럼 파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의 저는 한국에 대해서 그야말로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사이에 내 의식을 일변시킬 정도로 이 합숙세미나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미용광고의 사용전과 사용후 처럼 저 자신도 변화에 놀랐습니다. 지금 「한국」이라고 들으면 왠지 따뜻한, 정다운 기분이 듭니다. 단순히 흥미가 생겼다고 하기보다는 마음속으로부터 한국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것은 국제이해라 해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교류하는 것 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못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혹시 조금이라도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었더라면 한국분들이 기뻐 했었을텐데… 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3일동안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야기하고 노는 것으로도, 서로의 마음은 통한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서툰 영어 한마디라도 천금의 무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경험한 것, 느낀 것, 특히 한국인이 아주 좋아졌다는 것을 제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이번에 느낀 자신의 여러면에서의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해 한국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면서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이 세미나에 참가하게 해 주신분들, 그리고 사람마다 개성이 있는 일본인 학생멤버 여러분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4. 홈스테이 가정이 느낀 인상

「반일」에서 「선의의 경쟁」의 마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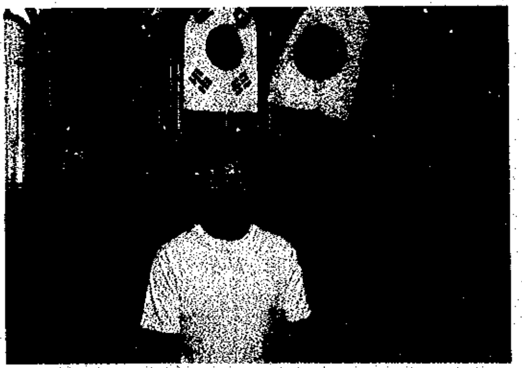
기타무라 가요코 (北村佳代子)
니이가타현 (新潟県)

이번 홈스테이에서는 한국인 청년 車永福씨를 모실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저희집은 말레이시아, 네팔, 라오스 등 모두 7개국사람들이 우리집에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저 자신도 같은 시기에 12개국을 여행하여, 조금이나마 국제이해를 추진하는 데 앞장서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웃나라인 한국분을 맞이하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만, 니이가타공항에서 대한항공이 이착륙을 하고 있는 것과 일본인 여자친구가 한국사람과 결혼해서 현재 한국에 살고있는 것도 있고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한국분의 홈스테이를 받고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로부터도 한국에 관한 이야기는 듣고 있었고, 평소에 한국과 일본의 과거에 대한 역사와 매스컴 등에서 보도되는 사실에 매우 상심하여,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마음의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만 있다면… 하고 마음 한구석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의사소통의 수단인 언어(영어 등) 을 갖고 있지않아 직접 대화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국어를 할수 있는 중국인 친구의 도움으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야마토(大和朝廷) 시대에 일본의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 중에는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증거로 일본의 독자적인 고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전방후원분 (前方後円墳) 은 한반도에도 있으며, 한국쪽이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로 시작되어,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 여러분들에게 심대한 고통을 준 것, 교과서 검정으로 인한 「침략」「진출」의 진짜 의미, 일본의 조선인학교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현재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 등의 이야기를 중국인 친구을 매개로 쌍방의 생각이 서로 통했다고 실감했습니다. 한국사람한테 직접 의견을 들을 수가 있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현재, 한국인 특히 40대 이하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앞으로 일본인과 어떻게 사귀어 나갈까 하는 문제에 「단순히 "반일" 만의 감정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 상대" 로서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한자로 써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홈스테이 경험으로 실감할 수있는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첫걸음

하타나카 요오코 (畑中容子)
후쿠이현 (福井県)

수년전 덴마크에서 홈스테이를 하였다. 그 이후 언젠가 이 보답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간신히 그 기회가 닿았던 것이다. 결혼해서 반년 남편하고 단둘이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쓸쓸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있었지만 다행히 친구 집에서도 홈스테이를 한다고 해서 결심할 수가 있었다.

친구 집도 부부만 살고 있기 때문에 첫날 밤과 다음날은 두 가족이 합동으로 행동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첫날의 저녁식사는 식성도 모르는 채 생선 초밥을 주음식으로 정했다. 그러나 두사람다 생선을 먹지 못하는 것 같아 식사는 실패했지만, 이상하게도 이야기는 활기를 띠었다. 한 사람은 일본어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영어를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아 한국어, 영어, 일본어가 난무하는 국제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연회가 되었다. 무엇을 이야기 할까 하는 불안도 어느덧 사라지고 그녀들의 웃는 모습이 우리들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다음날은 가랑비가 내렸는데도 바베큐를 강행하였다. 슈퍼에서 그녀들의 물건 사는 모습에 조금 놀랐으나 (바구니 속에는 과자가 가득하였다) 바베큐는 대성공이었다. 알콜을 마신 여세로 그대로 노래방에 직행 했다. 음악은 세계 공통이다. 우리는 일본노래를 가르쳐 주고 한국 노래를 배우고 마지막에는 춤까지 추었다. 최고로 즐거운 한때였다.

한국에서는 친해지면 손윗사람을 "오빠" "언니" 라고 부른다고 한다. 우리들도 서로 오빠, 언니로 불렀다. 잠시후에는 자연스럽게 그녀들의 호칭을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틀하고 반나절이 지났다.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모든게 첫 경험이어서 익숙치 못한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힘껏 신경을 쓰고 노력해 주신 그녀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한국과 일본의 우호 역사는 아직 짧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정의 고리를 넓혀나가고 싶다. 다음 번에는 한국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우리들의 우호 역사가 시작되었다.

김기덕씨,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다키 이쿠코 (瀧維久子)
(아키타현) (秋田県)

저희들의 첫 홈스테이의 게스트로서 오신

김기덕씨는 대면식 때 부터 금방 친근감을 가질 수가 있는 분이어서, 지금까지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을 정도입니다.

김기덕씨는 예의 바르고 사려 깊고 그렇다고 해서 딱딱하지도 않은, 인품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직감적으로 그것을 느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기덕씨는 일본어를 아주 잘해 회화에는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에 따라서 모르는 것도 있어서 우리집 둘째 딸이 사용했던 「싫지 않아」라는 말이 좋다는 것인지 싫다는 것인지 묻는 등 그런 식으로 가족이 왁자지껄하게 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딸은 부끄러움을 잘타는 소극적인 아이인데도 「앗짱」「앗짱」하고 예뻐해 주어 저희들은 매우 기뻤습니다.

김기덕씨는 스포츠도 대단히 좋아하였습니다. 남편과 골프연습장에 가서 손에 물집이 생겼을때 「마메」라고 가르쳐 주었더니 「마메」가 선물이 되었다는 등 오히려 저희들에게 신경을 써 주었습니다.

마지막날 밤 9시가 좀 지나 다른 홈스테이 하시는 분으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걱정하였으나 이야기를 듣고 웃어버렸습니다. 그 한국 분은 그다지 일본어를 못한다고 하는데 대화중에 자주 나오는 「역시」라는 말을 아무래도 모르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역시」는 역시 외국 분에게는 어려운가 봐 하고 서로 웃었습니다.

홈스테이가 끝나 돌아가는 날 김기덕씨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만, 답례를 해야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회인이 될 김기덕씨의 활약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실적자료

1. 대한민국 청년초청사업 실적 일람표

● 1991년도(98명)

	인수	실시협력단체	실시현	JICA지부	지방협력단체
청년지도자	19	青少年育成國民會議	三 重	關 西	三重縣青少年育成縣民會議
교 원	20	日本유네스코協會聯盟	山 口	中 國	山口縣유네스코協會聯盟
근로청년	28	勤勞厚生協會	沖 繩	沖 繩	沖繩縣國際交流團體
학 생	31	世界青少年交流協會	岡 山	中 國	岡山世界青年友지會

● 1992년도(99명)

	인수	실시협력단체	실시현	JICA지부	지방협력단체
학 생	26	世界青少年交流協會	靜 岡	關 東	靜岡縣國際交流協會
교 원	25	日本國際協力센터	秋 田	東 北	秋田縣國際交流協會
근로청년	25	勤勞厚生協會	愛 媛	四 國	愛媛縣青年海外協力協會
청년지도자	23	青少年育成國民會議	北海道	北海道	北海道 YMCA

● 1993년도(96명)

	인수	실시협력단체	실시현	JICA지부	지방협력단체
학 생	25	世界青少年交流協會	石 川	北 陸	石川縣世界青年友지會
교 원	24	日本國際協力센터	岩 手	東 北	岩手縣國際交流協會
근로청년	23	勤勞厚生協會	高 知	四 國	日本青年會議所高知블록協議會
청년지도자	24	日本유스호스텔協會	新 潟	關 東	新潟縣유스호스텔協會

● 1994년도(100명)

	인수	실시협력단체	실시현	JICA지부	지방협력단체
청년지도자	25	日本유스호스텔協會	沖 繩	沖 繩	沖繩縣유스호스텔協會
교 원	25	青年海外協力協會	北海道	北海道	北海道青年海外協力隊OB會道東支部
근로청년	25	勤勞厚生協會	埼 玉	關 東	上尾市國際交流推進委員會
학 생	25	世界青少年交流協會	新 潟	關 東	新潟縣世界青少年友지會

● 1995년도(98명)

	인수	실시협력단체	실시현	JICA지부	지방협력단체
청년지도자·공무원	25	국제교류서비스협회	新 潟	關 東	(財)新潟縣國際交流협회
근로청년	23	근로후생협회	埼 玉	關 東	上尾市國際交流推進委員會
교 원	25	日本유스호스텔협회	福 井	北 陸	(財)福井縣國際交流협회
학 생	25	世界青少年交流협회	秋 田	東 北	秋田縣世界青少年友지會

2. 1995년도 청년초청사업 실적 일람표

실시기간	국 명	분 야	인수	실시 협력 단체	실시현
5월 10일~6월 8일	인도네시아	교육	22	청년해외협력협회	山形
1진 94명	인도네시아	사회개발	25	근로후생협회	徳島
	필리핀	교육	22	청소년육성국민회의	山梨
	필리핀	사회개발	25	일본경제청년협의회	廣島
5월 24일~6월 22일	싱가포르	교육	22	국제교류서비스협회	茨城
2진 94명	싱가포르	사회개발	25	일본우애청년협회	大阪
	태국	교육	22	세계청소년교류협회	靜岡
	태국	사회개발	25	일본유스호스텔협회	京都
6월 7일~7월 6일	말레이시아	경제경영	25	세계청소년교류협회	徳島
3진 94명	말레이시아	중소기업	25	청년해외협력협회	愛媛
	필리핀	경제 A	20	유스워커능력개발협회	廣島
	필리핀	경제 B	24	일본국제협력센터	石川
6월 21일~7월 20일	인도네시아	경제 A	20	국제교류서비스협회	島根
4진 110명	인도네시아	경제 B	24	근로후생협회	群馬
	싱가포르	경제 A1	20	일본국제생활체험협회	宮城
	싱가포르	경제 A2	24	일본유스호스텔협회	福岡
	싱가포르	경제 B	22	일본경제청년협의회	愛知
6월 28일~7월 27일	방글라데시	공무원(사회복지관계)	20	청년해외협력협회	岩手
5진 93명	부탄·몰디브	교원	10	유스워커능력개발협회	沖繩
	인도	청년지도자(사회개발)	23	일본국제협력센터	愛知
	네팔	교원	10	일본청년단협의회	徳島
	파키스탄	공무원(농업개발)	20	세계청소년교류협회	山口
	스리랑카	교원	10	청소년육성국민회의	北海道
7월 5일~8월 3일	한국	청년지도자·공무원	25	국제교류서비스협회	新潟
6진 98명	한국	근로청년(기술계)	23	근로후생협회	埼玉
	한국	교원(양호학교)	25	일본유스호스텔협회	福井
	한국	학생(이과계)	25	세계청소년교류협회	秋田
8월 23일~9월 21일	필리핀	농업	25	전국농촌청소년교육진흥회	大分
7진 94명	태국	농업	25	일본청년단협의회	青森
	태국	경제 A	20	일본경제청년협의회	秋田
	태국	경제 B	24	근로후생협회	愛知
8월 30일~9월 28일	태평양 혼성	공무원	22	청년해외협력협회	岐阜
8진 78명	태평양 혼성	교원	14	일본유스호스텔협회	石川
	파푸아뉴기니	공무원	10	세계청소년교류협회	富山
	파푸아뉴기니	교원	20	일본국제협력센터	滋賀
	피지	공무원	12	청소년육성국민회의	和歌山

실시기간	국 명	분 야	인수	실시 협력 단체	실시현
9월13일~10월12일 9진 105명	인도네시아	농업	25	전국농촌청소년교육진흥회	鹿児島
	말레이시아	농업 개발	16	청년해외협력협회	栃木
	말레이시아	교육	25	유스워커능력개발협회	宮崎
	말레이시아	과학기술	25	豊川市국제교류협회	愛知
	부르네이	사회개발	14	일본국제생활체험협회	岡山
9월27일~10월26일 10진 113명	아세안 혼성	환경보존	30	일본경제청년협의회	北海道
	아세안 혼성	사회복지	30	세계청소년교류협회	富山
	아세안 혼성	보건의료	30	국제간호교류협회	山梨
	아세안 혼성	보도	23	일본국제협력센터	徳島
10월11일~11월9일 11진 97명	아프리카				
	영어권	여성교원 1	22	大阪府국제교류재단	大阪
	불어권	여성교원 2	25	大阪府국제교류재단	大阪
	영어권	경제개발공무원 1	24	국제교류서비스협회	山口
	불어권	경제개발공무원 2	12	청년해외협력협회	岡山
	불어권	경제개발공무원 3	14	세계청소년교류협회	岡山
10월18일~11월16일 12진 98명	베트남	공무원	25	일본국제협력센터	北海道
	베트남	경제	25	근로후생협회	大阪
	베트남	농업	24	전국농촌청소년교육진흥회	徳島
	베트남	교육	24	유스워커능력개발협회	石川
10월25일~11월23일 13진 88명	아세안 혼성	교육 1	18	일본국제생활체험협회	北海道
	아세안 혼성	교육 2	18	일본우애청년협회	熊本
	아세안 혼성	경제 1	17	일본국제협력센터	千葉
	아세안 혼성	경제 2	17	일본유스호스텔협회	静岡
	아세안 혼성	경제 3	18	청소년육성국민회의	福岡
11월8일~12월7일 14진 98명	중국	청년지도자	25	일본청년단협회	岡山
	중국	근로청년	25	일본경제청년협의회	三重
	중국	공무원	23	국제교류서비스협회	長崎
	중국	교원	25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福島
11월15일~12월14일 15진 99명	중국	산업기반정비	25	일본유스호스텔협회	鳥取
	중국	경제개발	24	근로후생협회	愛媛
	중국	지역진흥	25	세계청소년교류협회	香川
	중국	인재육성	25	청소년육성국민회의	沖縄
1월17일~2월15일 16진 80명	캄보디아	교육	30	청소년육성국민회의	大阪
	라오스	교육	20	국제교류서비스협회	高知
	미얀마	교육	20	세계청소년교류협회	兵庫
	몽고	공무원	10	청년해외협력협회	北海道
합계	71그룹 1533명	아세안 6개국(792) 태평양13개국・지역(78) 미얀마(20) 중국(197) 한국(98) 남서아시아제국 7개국(93) 몽고(10) 아프리카제국41개국 1국제기관(97) 캄보디아(30) 라오스(20) 베트남(98) 계 74개국・지역, 1국제기관			

3. 서울창구기관 (서울프로그램 실시기관)

대한민국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청소년교류과

4. 관련 청소년 단체 주소록

靑少年育成國民會議(청소년 육성 국민회의)
(National Assembly for Youth Development-NAYD)
3-1, Kamizonocho, Yoyogi, Shibuya-ku, Tokyo

世界靑少年交流協會(세계 청소년 교류 협회)
(The World Youth Visit Exchange Association-WYVEA)
Iwasaki Bldg., 1-7-2, Asakusabashi, Taito-ku, Tokyo

日本國際生活體驗協會(일본 국제생활 체험 협회)
(Japanese Association of the Experiment in International Living-EIL)
Tachibana Bldg., 6F, 4-5, Kojimachi, Chiyoda-ku, Tokyo

全國農村靑少年敎育振興會(전국 농촌청소년 교육 진흥회)
(The Rural Youth Education Development Association)
Sue Bldg., 3F, 4-19, Shin-ogawacho, Shinjuku-ku, Tokyo

日本經濟靑年協議會(일본 경제 청년 협의회)
(Junior Executive Council of Japan-JEC)
3-1 Kamizonocho, Yoyogi, Shibuya-ku, Tokyo

勤勞厚生協會(근로 후생 협회)
(The Working Youth Welfare Association)
3-1, Kamizonocho, Yoyogi, Shibuya-ku, Tokyo

유스워커能力開發協會(유스워커 능력 개발 협회)
(Development Association for Youth-DAY)
Hibiya Bldg., 6F, 1-1-1, Shinbashi, Minato-ku, Tokyo

國際交流서비스協會(국제 교류 서비스 협회)
(International Hospitality and Conference Service Association-IHCSA)
The 1st Annex of the Foreign Ministry, 2-2-1,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靑年海外協力協會(청년 해외 협력 협회)
(Japan Overseas Cooperative Association-JOCA)
Dai-2 Sano Bldg., 7F, 5-10-24, Minami-azabu, Minato-ku, Tokyo

日本靑年團協議會(일본 청년단 협의회)
(Japan Seinendan Council)
Nihon Seinenkan 2F, 15, Kasumigaoka-cho, Shinjuku-ku, Tokyo

日本유네스코協會連盟(일본 유네스코 협회 연맹)
(National Federation of UNESCO Associations in Japan)
Asahiseimei Ebisu Bldg., 12F, 1-3-1, Ebisu, Shibuya-ku, Tokyo

日本유스・호스텔協會(일본 유스・호스텔 협회)
(Japan Youth Hostels, Inc.)
Suidobashi Nishiguchikaikan, 2F, 2-20-7, Misaki-cho, Chiyoda-ku Tokyo

日本友愛靑年協會(일본 우애 청년 협회)
(Yuai Youth Association)
201 Heights Koishikawa, 4-21-2, Koishikawa, Bunkyo-ku, Tokyo

日本國際協力센터(일본 국제 협력센터)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JICE)
Shinjuku-Mitsui Bldg., 9F, 2-1-1, Nishi-shinjuku, Shinjuku-ku, Tokyo

早稻田大學國際交流센터(와세다 대학 국제교류 센터)
(Waseda University International Center)
1-104, Totsuka-machi, Shinjuku-ku, Tokyo

日本武道館(일본 무도관)
(Nippon Budokan)
2-3, Kitanomaru-Koen, Chiyoda-ku, Tokyo

韓国青年名簿
초청 청년 명단

靑年指導者
청년지도자

박 성부 (朴 盛夫)
(團長) Park Sung Boo

우 상일 (禹 相一)
(副團長) Woo Sang Il

김 창수 (金 昌洙)
Kim Chang Soo

권 석주 (權 錫周)
Kwon Sug Ju

고 기석 (高 琦錫)
Ko Ki Suk

이 경직 (李 璥稙)
Lee Kyung Jik

이 종희 (李 終姬)
Lee Jong Hee

곽 태열 (郭 台烈)
Kwag Tae Ye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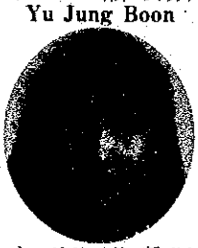
박 에스터 (朴 Esther)
Park Esther

유 정분 (柳 貞芬)
Yu Jung Boon

최 현수 (崔 玄洙)
Choi Hyun Soo

박 덕용 (朴 德用)
Park Duk-Yong

차 영복 (車 永福)
Cha Young-Bog



강 형분 (姜 馨分)
Kang Hyung-Bun

김 수연 (金 秀姸)
Kim Soo-Yeon

정 광희 (鄭 光希)
Chung Kwang-Hee

하 형진 (河 亨鎭)
Ha Hyoung-Jin

장 길남 (張 吉男)
Jang Gil-Nam

지 용철 (池 鎔撤)
Ji Yong-Chul

배 제현 (裵 濟玄)
Bae Je-Hyun

이 계원 (李 啓媛)
Lee Gye-Won

노 순자 (盧 順子)
Ro Sun-Ja

이 경아 (李 瓊娥)
Lee Kyung-Ah

홍 소연 (洪 昭然)
Hong So-Youn

황 태학 (黃 泰學)
Hwang Tae-Hak

勤労青年
근로청년

이 수덕 (李 水德)
Lee Su-Deog

이 영경 (李 瑛京)
Lee Yong-Kyong

김 옥진 (金 玉鎭)
Kim Og-Jin

정 용호 (鄭 龍昊)
Jung Yong-Ho

이 용원 (李 容院)
Lee Yong-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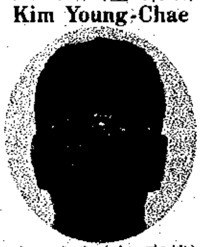
김 영동 (金 榮東)
Kim Young-Dong

김 영채 (金 榮采)
Kim Young-Chae

강 신익 (姜 信翼)
Kang Shin-Yik

박 종세 (朴 鍾世)
Park Jong-Sae

고 광율 (高 光律)
Koh Gwang-Ryul



이 경재 (李 慶載)
Lee Kyung-Jae

고 형석 (高 亨碩)
Koh Hyung-Saok

김 연희 (金 蓮姬)
Kim Yeon-Hee

이 영호 (李 映昊)
Lee Youn-Ho

최 영옥 (崔 英玉)
Choi Young-Ok

최 연호 (崔 淵浩)
Choi Yeon-Ho

이 종열 (李 鍾烈)
Lee Jong-Yeoul

이 영재 (李 榮載)
Lee Young-Jai

최 병철 (崔 秉哲)
Choi Byong-Chul

고 명집 (高 銘執)
Ko Myung-Jib

양 재영 (梁 在永)
Yahg Jae-Young

정 철진 (鄭 哲鎭)
Jung Chul-Jin

홍 순창 (洪 淳創)
Hong Soon-Chang

教 員
교 원

이 광진 (李 光鎭)
Lee Kwang-Jin

정 현주 (鄭 炫周)
Chong Hyun-Ju

최 혜영 (崔 惠英)
Choi Hea-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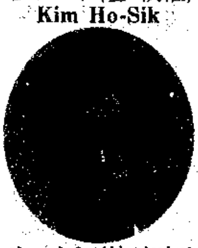
김 영자 (金 英子)
Kim Young-Ja

김 호식 (金 洪植)
Kim Ho-Sik

이 혜경 (李 惠卿)
Lee Hae-Kyung

조 동열 (趙 東烈)
Cho Tong-Nyol

원 성옥 (元 省玉)
Won Seong-Ok


한 상욱 (韓 相旭)
Han Sang-Wook

권 오희 (權 五熙)
Kwoun O-Hee

김 기승 (金 起承)
Kim Ki-Seung

공 미영 (孔 美英)
Kong Mi-Young

이 인식 (李 仁植)
Lee In-Seek

인 경숙 (印 慶淑)
In Kyoung-Suk

정 영란 (鄭 英蘭)
Chong Young-Lan

조 남준 (趙 南濬)
Cho Nam-Jun

김 명숙 (金 明淑)
Kim Myung-Suk

이 광봉 (李 光鳳)
Lee Kwang-Bong

윤 경미 (尹 京美)
Yun Kyung-Mi

박 윤규 (朴 允奎)
Park Yun-Kyu

조 영기 (曺 永起)
Cho Young-Gi

강 병관 (姜 秉官)
Gang Byeong Goan

이 상진 (李 相振)
Lee Sang-Jin

오 성만 (吳 聖萬)
Oh Sung-Man

신 연희 (愼 蓮姬)
Sin Yeoun-Hee

学 生
학 생

오 현영 (吳 炫映)
Oh Hyun-Young

배 경택 (裴 敬澤)
Bae Kyoung-Taek

오 재함 (吳 在涵)
Oh Jae-Ham

김 자경 (金 慈暻)
Kim Ja-Kyung

이 수진 (李 受眞)
Lee Su-Jin

구 현 (具 玹)
Koo Hyun

허 소정 (許 素禎)
Hur So-Jeong

김 희선 (金 希宣)
Kim Hee-Sun

류 나영 (柳 羅英)
Ryu Na-Young

박 재일 (朴 在一)
Park Jae-Ill

류 효석 (柳 孝錫)
Ryoo Hyo-Seok

유 호갑 (劉 鎬甲)
Yoo Ho-Gab

이 진현 (李 眞賢)
Lee Jin-Hyun

이 상준 (李 相濬)
Yi Sang-Jun

임 지선 (林 智善)
Yim Ji-Seon

박 종성 (朴 鍾成)
Park Jong-Sung

박 혜진 (朴 慧鎭)
Park Hye-Jean

김 기덕 (金 起德)
Kim Ki-Duk

오 성근 (吳 成根)
Oh Seong-Kun

박 근영 (朴 根永)
Park Keun-Young

최 병철 (崔 秉哲)
Choi Byung-Chul

구 윤상 (具 允相)
Ku Yoon-Sang

허 정임 (許 廷任)
Heo Jung-Im

신 은기 (愼 琨琪)
Shin Eun-Gee

박 철우 (朴 喆雨)
Park Chul-Woo

青年招へい事業 ―韓国―［交流レポート］(1995)
청년초청 사업 ―한국―［교류 보고서］(1995)
平成8(1996)年3月31日

発行　国際協力事業団研修事業部青年招へい課
Youth Invitation Division
Training Affairs Department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151 東京都渋谷区代々木2丁目1-1
新宿マインズタワー
SHINJUKU MAYNDS TOWER
2-1-1, Yoyogi, Shibuya-ku, Tokyo 151 Japan
Phone (03) 5352-5402～3
編集　(財)日本国際協力センター 国際交流部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
International Exchanges Department
〒163-04 東京都新宿区西新宿2-1-1 新宿三井ビル内
私書箱300号 (9階)
Shinjuku Mitsui Bldg., 9F,
2-1-1, Nishi-Shinjuku, Shinjuku-ku, Tokyo 163-04 Japan
Phone (03) 5322-2561

無断転載を禁じます。　무단전재를 금함.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国際協力事業団